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정 초대석 —————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제11대 강릉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공교롭게도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이번 호 <강릉 플러스>는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을 초대해 강릉의 주요 현안과 해결책,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강릉 플러스>는 앞으로 의장단과 각 위원회를 차례로 만나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편집실

민선 7기 후반기 강릉시의회 선장을 맡으셨는데요, 먼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를 엄습한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치,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게 되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강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시의회의 방향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요?

제11대 하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관행과 타성으로 행해지던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격식과 문턱을 과감하게 없앨 생각입니다. 우선, 시 집행부와 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강릉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전문위원 확충,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의정 연수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9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정현안을 다루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시민과 현장의 소리를 살피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은 몇 년 전부터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풀어가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지난 제10대 의회에서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상수원 보호 대책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쉽지 않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과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회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강릉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은 지난 2018 동계올림픽 이후 미래로 도약하느냐, 현재에 안주하느냐

코로나19 시기에 의장 맡아 무거운 책임감 불필요한 격식과 문턱은 과감하게 없앨 터 전문성·청렴성 강화해 ‘일하는 의회’ 목표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지금이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동계올림픽 때 우리 시가 받은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KTX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착공 예정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중남부선(부산~삼척) 구간과 연계한 광역 물류·산업 허브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철도, 북방 물류, 해양관광 등 환동해본부의 기능을 확대한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디지털, 그린 에너지 중심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고, 여러 지자체에서 정부의 정책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도 한국판 뉴딜에 강릉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강릉형 아트 뉴딜사업’을 추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준비 중인 세계합창올림픽,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세계교통올림픽인 ITS 세계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품격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성장동력을 갖춘 생동감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집행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하반기 의회 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례 제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㉔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 2020.10.19.~10.26 (8일간) -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 안건 심사(의원발의 조례안 1건)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하여 주요업무 보고 청취

지난 10월 19일부터 시작된 강릉시의회 제287회 임시회가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위원회는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8건의 안건, 윤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전 회기에서 보류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산업위원회는 '2021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재원조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코로나19 시대, 시책운영 꼼꼼하게 점검하길” 당부

또,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각종 시책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길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관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익순 행정위원장은 행정국, 복지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각종 보조사업에서 시비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 편성 관리에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

윤희주 부위원장은 강릉시 관광 관련 사진, 영상 등 이미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재안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약품 등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유해 성분 유무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

조대영 의원은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강릉 해의 홍보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주문.

허병관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 시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 또, 발달장애인, 자폐 아동 등을 위한 전담 주간 보호시설 수요가 많이라며 이를 단계별로 확충해줄 것을 주문.

김복자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예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

김미랑 의원은 남부권 수영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편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남자 단기 청소년센터 신설 및 대책도 주문.

정광민 의원은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강릉'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구역 수립을 주문.

김진용 의원은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부는 꼼꼼히 검토하고, 또, 월화풍물시장을 철거한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과 방안을 요구.

산업위원회 주요 발언



정규민 산업위원장은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준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문진수산시장 현장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전선 교체 등 환경개선을 주문.

최선근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에 따른 일방통행로 지정 시,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주민의 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도심·구도심 중심의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당부.

신재결 의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직원 다수가 과학산업 분야 종사자이므로 회계 전문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건의. 또, 강릉농산물 출하 수수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배용주 의원은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경관조명 사업을 실무 부서인 에너지과에서 일괄 시공할 것을 건의하며, 내년 건축 재정이 예상되지만, 생활 민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

김기영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이 반납(환수)되지 않도록 해당마을에 행정 안내를 해줄 것을 강조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에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

이재모 의원은 주문진 불당골 새들마을사업이 주민 소득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광지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말 차량 단속 지도관리를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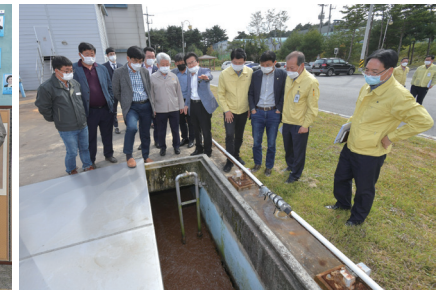
김용남 의원은 '동물사랑센터' 건축 시 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 또, '농업인의 날' 행사 수상자 심사대상자에 자격을 가진 농업인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조주현 의원은 라카이샌드파인 앞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의 확장·포장 공사가 시급하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추진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후관리를 당부.

“경호(鏡湖), 예술을 입히다”

CKU 지역문화관광포럼 II

강릉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경포 라카이샌드파인 한송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강릉 글로벌 관광 거점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발굴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차례대로) 지역문화관광포럼 후 기념촬영, 지역문화관광포럼 발표, 하반기 의정 연수, 강릉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발족식, 주문진농공단지 현장방문 모습